



# 全南大學 同窓會報



<제483호> 1986년 5월 10일 창간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1월호>



## 2025 제15회 용봉인천선등산대회 성황리에 열려

### 충남 봉수산 '백제부흥군길 제3코스' 일원에서 동문 150여 명 참여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는 '2025 제15회 용봉인 친선등산대회'를 충남 예산군 봉수산 '백제부흥군길 제3코스' 일원에서 11월 1일 열렸다.

이번 등산대회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산악회,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전남대학교서울동창산악

회, 전남대학교교수산악회, 전남대학교직원산악회, 전남대학교병원산악회, 전남대학교OB산악회 등 7개 산악회가 주관했다.

이날 서울과 광주에서 대형 버스 3대를 통해 동문회원 및 가족들 150여 명이 이번 연합 등산대회에 참여했다. 참여 동

문 회원들은 봉수산자연휴양림 주차장에 집결해서 상호 인사를 나누고 산행 계획을 공유하며 등산대회를 시작했다.

총동창회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은 "용봉인들의 큰 잔치가 역사 깊은 봉수산에서 열려 감회가 새롭다"며 "내년 창립70주년 등산대회에는 더 많은 동

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산행은 봉수산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 임존성을 거쳐 대련사까지 이어지는 약 4km를 등반 후 하산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산행이 끝난 후 동문 회원들은 '광시한우테마공원'에서 열린 뒤풀이에서 회포를 풀고

친목을 나눴다.

한편 '용봉인천선등산대회'는 '전남대학교 에베레스트 등정(2006.5.16.) 1주년 기념 등반'에서 매년 정례화하여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진행되고 있다.

##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1956년 7월 8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대학 총동창회를 창립한 전남대학교총동창회가 2026년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전대인의 자긍심으로 만들어 온 70년, '세대통합, 지역연계, 미래비전'을 주제로 펼쳐지는 동문·재학생·지역민의 한마당, 창립 70주년 기념행사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 용봉리더스포럼, 글로벌세아그룹 김웅기(섬유공학·70) 회장 특강

## ‘경청’과 ‘창조적 파괴 활동’은 기업가의 중요한 덕목

제 13회 용봉리더스포럼(회장 박양수)에 글로벌세아그룹 김웅기(섬유공학·70) 회장이 10월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 언론, 의료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로서 활약중인 130여 명의 모교 출신 동문들이 함께 했다.

김웅기 회장은 40년간 기업가로서의 성공스토리를 자전적 에세이로 완성한 책을 참석자 모두에게 증정하였다. 김웅기 회장은 2시간여 동안 이어진 강연에서 창업 초기의 무자본 도전, 코로나19 팬데믹 속 생존 전략, 신뢰와 준비의 힘을 중심으로 한 자신만의 철저한 경영철학을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대기업 기업집단 60위로 10조 원대 글로벌 종합 기업으로 거듭난 회사의 성공스토리를 공개했다. 그 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위기와 절망,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밑바탕이 된 사랑과 신뢰를 통해 쌓아온 기회, 준비된 자만이 갖게 되는 행운, 그리고 경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까지 솔직하고 진솔



된 경험을 들려주었다.

김웅기 회장의 인생관을 담은 경영철학의 가장 기본이 된 밑바탕은 다름 아닌 ‘사랑’임을 전해준 이날 강연 내내 청중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웅기 회장은 기업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이롭게 헌신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선 반드시 적절한 이유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중 가장 박수가 컸던 장면은 김웅기 회장이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이야기였다. 김웅기 회장은 인생 최대 임팩트가 강했던 위기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회상했



다. 그는 “위기는 두렵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신뢰의 힘을 실감했던 미국 골프장 경영사례도 소개했다. 미국 초호화 프리미엄 골프장까지 무상으로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클럽회원들이 우리의 운영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기업이 가진 가장 큰 보물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례 소개에 몇몇 청중은 눈시울을 붉혔다. 김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겸손이 묻어 있었다.

강연말미에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과 영국의 탐험가 로버

트 스콧을 언급하면서 기회는 누구나 찾아온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에는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른다면서 동문들에게 “지금부터 시작하라! 사소한 준비가 미래의 기적이 된다!”고 당부했다.

김웅기 회장은 기업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경청’과 ‘창조적 파괴 활동’을 강조하면서 특히 2040년 탄생될 인간과 똑같은 AIG탄생을 앞두고 AI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창조적 파괴 활동’을 해야만 하며 이에 앞서 인간 교육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웅기 회장은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며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보물섬을 찾아 떠나길 바랍니다”라고 마무리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강연이 끝난 뒤 동문들을 대표해서 이금규, 문수진 동문이 꽃다발을 건넸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경영 강연이 아니라 삶의 궤적과 인간적 고민이 뒤섞인 시간이었다. 동문들이 이 강연을 통해 떠올린 것은 ‘성공한 기업인’이 아니라 ‘흡수저로 시작해 보물섬을 찾아낸 한 인생’이었다. 포럼 현장에는 오래도록 김웅기 회장의 말이 잔향처럼 울려 퍼졌다.

/글=하영준(지역개발·97)

### 2025년 용봉인친선등산대회 이모저모

## “봉수산에서 펼쳐진 전국 용봉인들의 큰잔치”



본회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가 주최한 2025 용봉인친선등산대회, 봉수산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 임존성을 거쳐 대련사까지 이어지는 약 4km의 열띤 등반 현장을 사진에 담았다.



# 총동창회, 2025년 제97차(10월) 집행위원회 개최

## 본회 70주년 행사 및 휴면 단체 총회 개최 안건 승인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 2025년 제97차 집행위원회가 10월 28일 뜰안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회장단, 단과대학 동창회장, 모교 관계자를 비롯한 본회 집행위원들이 참석했다. 개회식, 참석자 소개, 류혜경 회장 인사말과 함께 안건 토의를 진행했다.

‘총동창회 70주년 행사 승인의 건’과 ‘휴면 단체 총회 개최의 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안과 논의가 이뤄졌고, 의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내년 총



동창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시·군지부 조직 재정비를 비롯한 조직 활성화 노력을 계속하고자 한다”며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친교의 시간을 통해 창립 70주년 기념행



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기약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남대학교 총동창회는

2026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뜻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강 위 원(국어국문·94)	500,000	박 래 전(경관·34기)	200,000	정 준 택(정치외교·79)	200,000
김 보 곤(경최·9기)	1,000,000	박 명 숙(국어국문·98)	200,000	주 순 선(공법·86)	200,000
김 제 성(경영·86)	5,000,000	양 광 섭(자원공학·75)	200,000	최 중 구(건축·70)	1,000,000
김 택 수(경제·72)	200,000	오 형 석(불어불문·83)	20,000,000	최 희 동(원예·74)	5,000,000
김 혜 영(간호·91)	500,000	유 경 연(의학·70)	1,000,000	황 선 욱(의학·66)	200,000
노 영 대(경최·7기)	400,000	이 효 석(의학·01)	1,000,000		
류 혜 경(의학·76)	30,000,000	임 현 준(교육대학원)	1,000,000		

(2025년 11월 19일 현재)



2026년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

##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지역사회 숙원 전남대 새병원 건립 - ICT 기반 스마트병원으로

전남대병원 본원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용이 병원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환자 불편도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병원 건립 사업이 2025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9,629억원 중 50%에 달하는 자부담 비용 마련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전남대총동창회에서는 시·도민들의 의지를 한 데 모으고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참여방법]

- 모금기간 : 2025년 11월 ~ 2026년 12월
- 모 금 액 : 벽돌 1장당 20만원 (여러장 가능)
- 계 좌 : 광주은행 1107-021-552813 전남대학교총동창회(입금시 이름, 출신학과 등 기재)

※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전남대총동창회 사무처(062-528-9946)로 연락 바랍니다.



# 전국 등산대회에서 전남대 학생들이 우승 휩쓸어

11월1일~2일 1박 2일동안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열린 '제67회 전국 60km극복등행대회'에 전남대산악회 재학생 10명이 참여해 남자대학부 1위, 남자대학부 3위, 여자대학부 1위, 남자일반부 1위 등 출전 선수 전원 입상하며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하도록 했다.



'전국 60km 극복 등행대회'는 1929년 발생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11월 3일)하여 매년 가을에 팔공산 일원에서 대구·경북 산악계의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되는 유서 깊은

행사로 올해로 67회째이다. 대회는 대한산악연맹 등산대회규정에 따라 암벽등반, 매듭법, 이론평가, 독도법, 응급처치 등 등산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기술, 체력을 겨루게 된다.

남녀 각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된다. 전남대는 월등한 기량으로 작년에 이어 남녀 대학부 모두 2년 연속 우승하였다.

#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재학생 6명에게 장학금 전달

'지역민과 함께 하는 대학 농업축제'



본회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는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주최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대학 농업축제'에서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희동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취업상담 부스도 작년보다 늘어

나고 농업축제의 열기가 뜨겁다"면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농업생명과학대학 재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류혜경 총동창회장 초청 명예교수회 집담회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회(회장 김병기)는 류혜경 총동창회장 초청으로 10월 17일 '회트는 마을'에서 10월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생활 속의 금속 재료'를 주제로 이도재 공과대학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참여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전남대 명예교수회는 명예교수들이 학문 간의 장벽과 경계

를 넘어 열린 시선으로 소통하고, 학문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

해 매월 지적 담론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 무등지구 모임 열려



본회 무등지구(회장 장영태) 모임이 10월 27일 두암동 등촌에서 열렸다. 장영태, 김창현,

손희하, 김창호, 윤현두, 강경민, 정현철, 김태훈, 이태욱, 양혜령 동문 회원이 참여했다.



**서천건설 주식회사 瑞泉建設 (株)**  
SEOCHUN CONSTRUCTION CO.,LTD

[www.seochun.kr](http://www.seochun.kr)

**매일 멋진 꿈을 함께 꾸고**

**도전하는 내일이 더 멋진 사람들**

**우리는 서천건설 입니다.**

**대표이사 회장 김응일 (토목공학과 68 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0 청림빌딩 5층  
Tel. 02-549-9312~4 Fax. 02-514-5951 E-mail. seochuncon@daum.net

# 상무금요일장 이임순 여사, 전남대에 2000만원 기부

## 이금규(법학·95) 변호사 모친, 아들 모교에 감사 담아 지난해부터 기부

“저는 힘들게 막내아들을 대학에서 공부시켰지만, 지금 전남대 학생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상무금요일장에서 평생 성실하게 일해 온 한 어머니가, 아들의 모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년 연속 1천만 원을 기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10월 22일 전남대(총장 이근배)에 따르면, 상무금요일장에서 채소를 팔며 평생을 살아온 이임순(89) 여사가 지난 10월 16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누적 기부액은 2000만원이다.

이임순 여사는 “젊어서부터 농사일을 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7남매를 키웠다”며 “막내를 대학까지 보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전남대가 우리 아들을 훌륭한 법조인으로 키워줘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임순 여사가 기부를 결심하게 된 것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조금씩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제는 내 손으로 벌어들인 돈을 보람 있게 쓰고 싶다”고 말했다고, 자녀들은 막내아들의 모교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 여사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전남대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앞으로 사회의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실천했다.

이임순 여사는 “이제는 자식들도 제 자리에서 잘 살고 있으니, 그동안 고생하며 번 돈을 학생들을 위해 보람 있게 쓰고 싶었다”며 “배운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어른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여사의 막내아들 이금규 변호사(법학·95, 법무법인 도시 대표)는 1999년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울산지검, 광주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헌신했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도 꾸준히 공익적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소추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로 활동 중이다.

전남대는 지난 6월 이금규 변호사에게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훈 원장은 “상무금요일장에서 평생 성실하게 일해 오신 어머님께서 막내아들의 모교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임순 여사의 아름다운 뜻을 본받아, 대학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본회 해남지부 화합한마당 열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해남지부(회장 맹종호) 화합한마당이 10월 2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열렸다.

맹종호 해남지부 회장은 “해남지부 동창회는 가을음악회, 불우청소년 장학

금 지급 등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동문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있다”며 “이번 화합한마당이 전남대학교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지산학연 융합’ 전남대 용봉학술제 개최



지식·산업·학문·연구가 하나로 연결되는 융합 플랫폼 행사인 ‘2025 전남대학교 용봉학술제’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용지관과 민주마루 일원에서 열렸다.

대학이 축적한 연구 성과와 산업현장의 혁신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과 세계를 잇는 융복합 지식 생태계의 장으로, 올해는 성과전시·G-Fair(대학원 연구교류)·창업페스티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기업 대표와 청년 창업가, 투자자, 교수,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창업-투자’가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과전시관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소기업·자회사 전시, 학생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시제품 전시 등 대학이 보유한 첨단 기술과 산학협력 성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과와 연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대표 학술행사인 ‘G-Fair’에는 17개 단과대학이 참여해 포스터 발표 426건·구두 발표 201건 등 총 627건의 연구성과를 공개했다.

창의와 실험정신이 어우러지는 창업페스티벌은 창업특강·토크콘서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현장 창업 상담, 투자유치 우수기업 사례발표, 지역주력산업 기술트렌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 전남대 창업기업, AI 여성안전 플랫폼으로 CES 혁신상 쾌거

전남대학교가 지원한 창업기업이 여성 안전을 지키는 AI 플랫폼으로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10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단장 이윤성)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윌더타임(대표 조상은)이 개발한 AI 기반 여성 안전 플랫폼 ‘더가이드(The Guide)’가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인 ‘CES 2026’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포럼(CTA)가 매년 혁신적인 기술력과 디자인을 인정받은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세계 IT 산업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술상 중 하나다. ‘더가이드(The Guide)’는 여성의 안전을 예방-대응-회복 전 단계에서 지원하는 AI 통합 플랫폼으로, ▲AI 위협예측 엔진 ▲공감형 AI 상담



가 ▲스마트 트래커가 결합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위급 상황 시 버튼 한 번으로 SOS를 즉시 전송할 수 있다.

㈜윌더타임은 현재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6개국 이상과 MOU를 체결하고, AI·위성데이터·스마트시티 분야로 협력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CES 혁신상 수상을 계기로 ‘기술과 공감이 결합된 글로벌 안전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개축 준공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가 법학의 전통과 미래 혁신이 만나는 상징적 공간을 완성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훈 교수)은 2021년부터 추진해온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개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 3일(월) 오후 2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근배 총장을 비롯해 본회 류혜경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 박현철 광주지방법검찰청 검사장,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문방진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교직원, 동문, 학생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개축사업은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전남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추진됐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2023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2일 준공까지 총 25개월이 소요됐다. 총사업비 253억 원이 투입된 이번 개축공사는 연면적 9,293㎡, 지하 2층·지상 8층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한 자연친화적 친환경 건축물로 완성됐다.

새 건물에는 교육·복지공간, 연구공간과 리걸클리닉센터, 복합문화공간 등 교육, 연구, 복지, 실무, 교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형 법학 교육환경이 마련됐다.

## 전남대에서 시작된 연대 태국 학습자 가족 품으로

전남대 ‘리듬오브호프’ 학생들의 지원 활동이 국내외 협력을 이끌어내며 시리냐 씨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특히 리듬 전남대지부의 작은 정성이 알려지면서 배우 이영애 씨가 모금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와 연대, 책임을 중시하는 전남대의 교육 철학이 학생들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날인 11월 15일(토) 오전 12시 40분 광주시에서 리듬 전남대지부 학생들이 모여 시리냐 씨의 마지막 귀국길을 함께 배웅했다.

시리냐 씨는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중 지난 7월 숙소에서 쓰러져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10월 의료진은 심각한 뇌손상으로 의식 회복이 어렵다는 소견을 전했고, 시리냐 씨의 어머니는 “딸을 더는 타국의 병실에 홀로 둘 수 없다”며 고국로의 이송을 간절히 요청했다.

하지만 미납 치료비에 수천만 원에 달



하는 해외 환자 이송비가 필요해 귀국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리듬 전남대지부 학생들은 카드뉴스·포스터·영상 등을 제작해 SNS와 포털사이트에 공유하며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움직임에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이어져 900만 원이 모였다. 여기에 시리냐 씨의 사연을 접한 배우 이영애 씨가 1,000만 원을 기부하며 힘을 보탰다. 모인 1,900만 원은 병원비와 귀국에 필요한 이송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육로 이송을 담당한 김우현 응급구조사는 “대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 전남대병원 공공의료 인력지원사업 모범 운영

## 지역의료 격차 해소 앞장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신)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필수요를 지키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과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돼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공공병원에 전문의를 파견, 환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과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곳의 지역 의료원에 8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



전남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채용돼 목포시의료원에 파견된 재활의학과 강정중 교수가 환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원 중에서도 특히 활발한 운영 성과를 보이며, 지역 의료원들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에 각각 1명의 공공임상교수를 파견했다.

강진의료원에는 정형외과, 목포시의료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해 지역 주민들의 고난도 진료 접근성을 높였다.

의료인력 파견사업은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민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전남대병원은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전남대, '김정순 장학금 수여식'



평생을 농사와 시장일로 살 아온 이의 진심 어린 나눔이, 전남대학교 학생들에게 7년째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10월 29일(수) 대학본부에서 '제7회 김정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정순 기부자는 1946년 전남 함평군 해보면 출생으로, 평생 농사와 시장에서 일하며 모은 자비 1억 원을 2019년 전남대학교에 기부했다.

그는 기부 이후 매년 4명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

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8명의 장학생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선물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김정순 기부자는 직접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며 장학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한편, 김정순 장학금은 2026년까지 매년 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총 32명의 장학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대학교는 김정순 기부자의 선한 뜻을 이어받아, 나눔의 가치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전남대 5·18연구소, '한국의 극우' 연속 강연 개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한국 사회의 극단주의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소장 민병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한국의 극우'를 주제로 한 연속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 시리즈는 12·3 계엄 이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한국 극우의 양상과 역사, 현재의 흐름, 그리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탐구할 예정이다.

연속 강연의 첫 순서로 5·18 연구소는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초청하여 10월 16일(목) 오후 4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김남주홀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극우의 양상'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극우가 사용하는 언어와 이미지, 프레임 설정 방식,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 사례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극우 담론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온라인 활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며,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이 극우 담론에 대응하고 민주적 가치 회복 및 인권 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강연 시리즈는 민주·인권·평화 분야의 주요 이론과 현안을 공유하고, 차세대 연구자와 시민사회의 이론적·실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 전남대학교 JOB FESTA, 청년 열기 속에 성료

전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정난희 교수)는 10월 30일(목) 전남대학교 5·18광장에서 열린 「2025 전남대학교 JOB FESTA」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졸업생·지역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로, 전남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등 5,700여 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기업 채용상담존 ▲직무컨설팅존 ▲CNU HERO(전남대 히어로)존 ▲청년고용정책존 ▲유관기관 홍보존 등 8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와 현직자 멘토링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CNU HERO(전남대 히



어로)존에서는 전남대 출신 선배들이 직접 참여하여 취업 경험담과 산업별 인재상 등을 공유하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퍼스널컬러 진단, 타로상담, 지문인적성검사, 롤릿 이벤트 등 참여형 이벤트존이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개회식에는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대학 중심의 청년고용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함께했다.

정난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캠퍼스 총동창회, 청경한마음 축제 열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동창회(회장 노평우)가 주관한 제45회 청경한마음 축제가 10월 25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국동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본회에서 류혜경 총동창회장을 대신해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주철현·조계원 의원, 모교 김용민 여수캠퍼스 부총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동문 300여 명이 모여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각종 체육행사와 명랑 운동회, 경품 추첨 그리고 각 기수 대항 노래자랑도 펼쳐

졌다.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청경한마음 축제가 서로 우정을 나누고, 더 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참여와 애정이 동창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 ROTC동문회, 모교 학군단 동문 역사관 개소식

ROTC동문회(회장 이진용)는 10월 19일 전남대학교 학군단에서 ROTC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관을 개관했다. 모교 이근배 총장과 학군단의 배려로 학군단 내 강의실 이용하여 포토존을 마련하고 각 기수별 기록물과 물품을 기증받아 역사관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진용(자연대·84) ROTC동문회장은 “오늘 행사는 후보생 및 선후배들이 흠뻑 형태로 준비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전남대 ROTC는 1962년 1기 임관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 63기 임관까지 약 3,200명의 학군장교와 13명의



장군을 배출한 명문 대학으로서 위상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선배들에게는 ROTC의 전통과 역사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고, 후배들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훌륭한 ROTCIAN이 될 수 있는 동

기부여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ROTC동문회는 향후 후보생 장학금 모금과 함께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증받아 역사관을 확장할 예정이다.

/글= 이정일(공과대·85) ROTC동문회 수석부회장

## 2025년 재경 전남대학교 간호대학동창회 정기총회

2025년도 재경 전남대학교 간호대학동창회 정기총회가 11월 6일 호텔리베라 청담(15층 로즈홀)에서 박숙령 전남대 간호대학동창회장, 정종해 전남대 간호대학동창회 사무국장, 유성희 전남대 간호대학장, 임성주 전남대 서울동창회장, 위성암 전남대 서울동창회 사무1총장, 박양수 전남대 서울동창회 포럼회장, 이진용 전남대 서울 ROTC 동문회장, 이은석 전남대 서울 ROTC 동문회 사무총장, 이정일 전남대 서울 ROTC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조정영 회장 및 회원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엄옥주 명예회장의 진행으로 1부 정기총회에서 2025년 감사



보고, 회무 보고, 결산보고, 전회의록 낭독이 있었으며, 차기년도 임원은 2025년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현재 조정영 회장 이하 모든 임원이 1년 연임하기로 했다.

2부에서는 최현애 부회장의 내빈 소개에 이어 박숙령 간호대학동창회장의 격려사, 임성주 서울동창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유성희 간호대학장의 전남대 간호대학의 현재 상

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 등 모교의 간호대학 발전 현황을 생생하게 알려 주었다.

3부 만찬에서는 동문들간에 소식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올해 졸업생 등 최근 3년간의 졸업생들이 각 테이블의 리더가 되어 선·후배들간의 역동적인 레크레이션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내년에도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 인문학트레킹회

### 남도여행 1번지 여행기



옛 말에 ‘讀萬卷書 行萬里路’라는 말이 있다. 책으로 쌓은 지식과 몸으로 익힌 경험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진리이다. 여행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내면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행은 사람의 영혼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가장 행복한 활동이다.

인문학 트레킹회 회원들과 10월 25일 용산역을 출발 첫 여행지가 강진 백운동원림이었다. 백운동원림은 조선중기 처사 이담로가 1660년경 조영한 낙원이다. 유불선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과 풍경을 사유하고 삶의 의미와 유희를 깃들여 조성하였다. 원림을 재현한 자연과 건축물들이 원형에 가까운 듯하여 옛 문화유산을 보는 듯하여 만족스러웠다. 월출산 아래 원림 뒷편에는 파이란 다원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한가롭고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월출산 무위사에는 국보인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보물 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백의

관음도, 내벽사면벽화 선각대 사탑비이 있다. 무위사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쉬어가고 싶은 절집이다.

다산의 흔적을 따라서 다산 초당을 올랐고, 다산초당에서 백련사 가는 길에 천일각을 찾았다. 천일각에서 강진만을 내려다보는 눈맛은 참으로 맑고 시원했다. 다산선생과 혜장선사가 오가던 길을 걸어 백련사에 가 갔던 길을 되돌아와 청자 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청자 박물관에서 수많은 청자들을 보면서 선조들의 창의적 사고에 놀라움을 느꼈다.

다음으로 해남 고산 윤선도 선생의 고택, 보길도 고산 원림을 여행했다. 여행하는 동안 화창한 가을 날씨는 아니지만 땅 끝 전망대에서 해님이, 몽돌 해변에서 해돋이를 감상하며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과 대화를 하며 여행을 즐겁게 끝냈다.

/글=강영남(정치외교·68) 인문학트레킹회장

# 전남대 치과대학·치전원 총동창회 40주년 학술대회·기념식

### 공로·감사패, 자랑스러운 동문상 등 화합·발전 모색

전남치대 동문 용봉치인들이 총동창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화합과 발전의 의지를 다졌다.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가 '2025 용봉치인의 날 학술대회 및 기념식'을 지난 11월 1일부터 이틀간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교육관 5층 대강당 등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류혜경 총동창회장, 고정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황윤찬 전남

대 치과병원장, 한상운 전남치대 총동창회장,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치원 조선치대 총동창회장, 임성훈 조선대 치과병원장 등 수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는 조진형 교수(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종찬 명예동창회장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또 동문 모교 발전에 이바지한 오희균 동문, 고정석 동문에게는 자랑스러운 동문상이 수여됐으며, 기세일 전 재경

지부장, 양동환 전 호남지부장, 손오봉 전남대 치과병원 관리부장, 류미경 전남대 치과병원 전 치과기공사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동문들의 모교 발전 기금 전달도 예년과 같이 이어졌다. 오희균 교수와 황윤찬 전남대 치과병원장이 2000만 원을, 박상원 교수가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졸업 10주년을 기념한 31기에서 동창회 기금 1500만 원과 발전 기금 2000만 원을, 졸업 20주년을 기념한 21기에서



동창회 기금 1500만 원과 발전 기금 3000만 원을, 졸업 30주년을 기념한 11기에서 동창회 기금 1000만 원과 발전 기금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어 총동창회는 문예린 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을, 석사과정 학

년 대표들에게는 동창회 장학금을 전했다. 한편, 행사 둘째 날에는 화순 무등산CC에서 내빈과 동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봉치인 동문 친선골프대회'가 진행됐다.



## “김경명의 광주사랑” ④6 60에 의병을 일으킨 광주 선비 제봉 고경명

글·그림=김길남(지리교육·77) 동문

제봉 고경명(1533 ~ 1592)은 지금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압보촌(대촌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스무 살에 진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영암군수, 홍문관 교리, 춘추관, 동래부사 등 관직을 두루 거치고 59세에 고향으로 내려왔다. 시인 고경명은 관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할 기대에 부풀었으리라. 그러나 실 수가 없었다. 임진왜란이 터졌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의병들의 추대로 담양에서 의병대장이 되었다. “이제 찾았다. 내 인생에 화룡점정할 때다.”라고 외치는 고경명의 기치아래 6천명의 장정들이 모여 들었다. 고경명이 이끄는 의병은 선조가 있는 행재소(行在所)로 가다가 금산에서 일본군과 부딪혔다. 고경명은 이 전투에서 둘째 아들 인후와 함께 전사했다. 큰 아들 중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병을 일으켰다. 화순에서는 최경희, 보성에서는 임계영, 남원에서는 변사정이 호응했다. 모두 고경명의 휘하에서 싸우던 의병장들이었다. 그러나 장남 고중후까지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고경명 집안의 두 노비도 전투에서 희생되고 만다. 고경명 집안에서는 노비의 충성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 충노(忠奴) 귀인, 봉이 지비(之碑)라고 새겨진 비석은 지금도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에 있는 포충사를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고경명이 참가했던 금산전투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 금산, 이치, 용치에서 고전을 면치 못 했던 왜군은 전라도 침입을 사실상 단념하기로 한다. 이로써 조선의 곡창지대였던 전라도가 보전될 수 있었다. 전라도는 병력 조달, 선박 건조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병참 기지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고경명의 금산전투는 승리한 전투는 아니지만 왜군의 호남 공격을 막아 내고 임진왜란 초기의 균형회복에 큰 역할을 한 전투였다.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지정기간 [2024.01.01 - 2026.12.31]

**명지성모병원**

뇌경색 · 뇌출혈 · 치매

**종합병원 | 24시간 응급실 운영**  
**문의 1899-1475**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6**  
**2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 50m**

■ 민정준(의학·85,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동문

# 평생 음악을 벗삼아 살아온 세계적인 의학자의 음악 에세이



한국 핵 의학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연구자, 행정가이자 임상 의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원장 민정준(의학·85) 교수의 첫 번째 에세이집이 발간됐다.

핵의학과 분자영상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는 음악 신동이었다. 평생 의학의 길을 추구하면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고 국내외 학계의 발전에 기여하

면서도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꺼뜨린 적은 없었다.

음악가와 결혼하고 자녀를 연주자로 키워 음악 가족을 이루었고, 정신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음악회를 찾아 삶의 에너지를 얻었다.

전남대 의과대학 관현악반 지도교수로서 학생들과 음악이 주는 기쁨과 감동을 함께 하며, 병원 소식지의 고정 칼럼을 맡아 7년 넘게 음악 이야기를 연재했다.

스스로 '60년 인생을 음악과 함께 걸어온 사유의 여정'이라고 정의한 이 책에서 그는 평생



음악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잔잔한 목소리로 풀어낸다.

때로는 악곡에 관해, 때로는 작곡가나 연주자에 관해, 때로는 대중가요나 개인적 인연에 관해 들려주는 서른두 편의 에

세이는 첼리스트 박경옥이 말하듯 정확한 고증과 인문학적, 철학적 사유를 보여주지만, 무엇보다 음악과 삶에 대한 겸손하고 따스한 시선이 빛을 발한다.

한편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핵의학과 분자영상학 분야의 국내 대표 학자로서, 200여 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여 약 12,000회 이상 인용되는 등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인 최초로 세계분자영상학회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출되었다.

음악과의 인연도 깊다. 일곱 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이

듬해인 1973년 조선대학교 콩쿠르 2위, 1974년과 1977년에 호남예술제 초등부 1위를 수상했으며, 1977년에는 광주실내악단과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을 협연하였다.

전남의대 재학 시절부터 광주실내악단과 전남의대 관현악반에서 활동했고, 1988~1989년에는 관현악반 악장을 맡았으며, 이후 수차례 지휘자로 무대에 섰다. 현재 전남의대 관현악반 지도교수로서, 음악이 주는 기쁨과 감동, 그리고 고된 연습이 전하는 가르침을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고 있다.

## 호남 최대 미술 축제 '광주국제아트페어' 인기

지난 10월 23일부터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 최대 미술 축제인 '광주국제아트페어'가 2만 8,000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지역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우미경 작가, 김철우 전남대 교수, 이정기 작가, 백애경 작가, 김현진 작가, 한태희 작가 등 동문 작가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개막 첫날인 23일에는 작품 해설(도슨트) 프로그램에 120명이 몰려 신청이 조기 마감됐으며 공식 개장 전부터 전시장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서 지역 미술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스페인 등 해외 10개국에서 11개 갤러리가 참여해 광주가 국제미술 교류의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

을 보여줬다. 이 가운데 7개 갤러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여했다.

광주광역시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예술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며 "광주국제아트페어가 예술가에게는 꿈의 무대, 시민에게는 행복한 예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문기고

## 완주인증서 나오는 서울둘레길, 탐방이 더욱 기대



이두백(법학·69) 동문

아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탐이 21개 코스로 나뉜 서울둘레길을 완주하고 완주증

명서를 받았다. 이 인증서를 받기 위해 96일 중 시간 나는 대로 봄 및 초여름 정취를 감상하면서 서울시 각 구의 풍광과 풍속을 흥미롭게 돌아본 셈이다.

둘레길 구간마다 예쁘게 설치된 빨간 우체통, 문양이 각각 다른 28개 스탬프, 두루말이로 된 용지에 모두 받는 재미 또한 누렸다. 서울둘레길을 완주하고 절차를 거쳐 완주 인증서를 받으면서 기쁘고 뿌듯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완주인증서를 받

행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세계인이 찾는 둘레길과 트레킹코스가 많이 개발되기를 오래전부터 바라왔다.

첫 번째 계기는 2002년에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아내랑 아프리카 지붕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산을 3박 4일간 종주하고 완주인증서를 받았을 때였다. 탄자니아국립공원에서는 인증서 받은 등산인들을 국가별로 상세히 통계까지 내고 있었다. 또한 현지가이드 성명까

지 개인 완주인증서에 분명히 표시해 주었다. 그때 이러한 종류의 인증서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2006년 보르네오섬 북쪽의 키나발루산을 2박 3일간 종주하고 받은 2개의 종주 인증서에는 인증서 번호와 함께 키나발루공원에 대한 설명, 현지 안내인 이름 등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다양한 코스의 트레킹 완주인증서는 완주 후 오래도록 좋은 추억을 반추해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둘레길과 탐방길 등에 대해서도 완주인증서 발급과 유사한 제도와 실질적인 관리지원책이 많이 발굴되고 지속되기를 기원해 본다. 최소한 난개발로 끊어지고 통행이 위험해진 길들이 이어지거나 안전 설비들이 강화되어 안심하고 산책을 즐기는 산책객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 치대 동문, 후배 위한 발전기금 2천만원 기탁

전남대 치과대학 동문들이 후배 사랑과 모교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한상운 SM치과병원 대표원장과 치과대학 11기 동창회가 발전기금 각 1천만 원을 기부하며, '치전원 가족'의 따뜻한 동문 정신을 이어갔다.

전남대는 지난 10월 23일 대학 본부 5층 접견실에서 한상운 SM치과병원 대표원장과 치과대학 11기 동창회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상운 원장은 1994년 전남대 치과대학 10기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2003)와 박사(2006) 학위를 취득한



동문이다. 현재 SM치과병원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제21대 동창회장으로서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해 앞장

서고 있다. 이날 한상운 원장은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대학과 후배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했다.

또한 치과대학 11기 동창회에서도 동문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11기 동창회를 대표해 안성호 안치과의원 원장이 참석해 기부의 뜻을 전했다.

한상운 원장은 “후배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성호 원장은 “동문 모두가 자랑스러운 전남대 치전원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I 윤 선 종(미술·88) 동문

# 광주 6월 항쟁의 역사성 원각사 기념비에 새겨

“6월 항쟁의 역사성을 시각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작가 인생의 큰 소명이었습니다.”

지난 9월, 광주 동구에 위치한 원각사의 입구에는 새로 세워진 높이 3m의 화강석 조형물인 '6월 민주항쟁 기념비'가 제막됐다. 단단한 대리석으로 제작된 기념비는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항쟁의 정신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설계·제작한 이는 광주와 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각가 윤선종(미술·88) 동문이다.



윤선종 작가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당간지주에서 모티브를 얻은 조형물에 민주 영령들이 불꽃처럼 산화한 모습과 자비를 상징하는 연꽃 모양을 배치해 6월 항쟁의 의미와 정신을 담아냈다.

윤선종 동문은 전남대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원대·전남대 등에서 외래교수로 강의했다. 그는 30년 넘게 대리석을 주재료로 작업을 이어오며 사

실적 표현을 바탕으로 초현실주의적 조각 작업을 펼쳐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리석 조각 전문 작가'로 꼽힌다.

## 전남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록물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추진



전남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UNESCO)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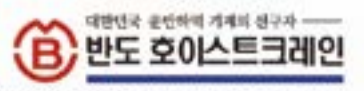
전남대는 최근 광주학생독립운동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추진단을 구성하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재외한인학회 국제 학술회의에서 1930년 3월 미국에서 발간된 영문 책자 'KOREA MUST BE FREE'(32쪽)를 공개했다.

이 책자는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뉴욕의 한 고서점에서 찾아낸 희귀 문헌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스위스 등 국제 사회에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호소한 영문 기록물이다.



### 운반하역 기계산업의 최강자, 반도 호이스트크레인

반도 호이스트크레인은 단순한 장비가 아닌,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여는 동반자입니다. 오늘의 산업을 움직이고 내일의 비전을 실현하는 힘, 반도 호이스트크레인에 함께합니다.



문의: 061-464-8800 | www.bandohoist.com

# 취임·승진·수상·출판 등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계재를 희망하는 동문은 관련자료(사진포함)를 보내주세요.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송경희(영어영문·86) 동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취임



송경희(영어영문·86) 동문이 지난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송경희 동문은 공직과 학계를 넘나들며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공지능(AI) 전문가다. 송경희 동문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맡았다.

■ 허영호(농생대·84) 동문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대 회장 선임



허영호(농생대·84, 미림산업개발㈜·민은산업개발㈜ 대표이사) 동문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2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허영호 동문은 3년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끌게 된다. 허영호 동문은 2001년부터 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과 나눔 확산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2010년부터 키우리 봉사회 사무국장 및 부회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헌신해왔다. 2014년 전남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 최현호(해양학과·90) 동문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취임



최현호(해양학과·90) 동문이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취임했다. 최현호 동문은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내에서 어업자원, 국제협력, 어촌정책 등 수산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수산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최현호 동문은 원양산업과장, 수산정책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어촌양식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현장과 정책을 모두 경험했다. 특히, 어업자원정책관 재직 시기에는 수산자원 회복과 불법어업 근절, 어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이지범(의학·83) 동문

### 대한피부과학회장에 선출



이지범(의학·83, 전남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 동문이 대한피부과학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제77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인준됐다. 이지범 동문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회장으로서 학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지범 동문은 그동안 대한피부과학회 총무·재무·기획정책이사 등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학술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의진균학회 회장, 대한여드름주사학회 회장, 대한피부외과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학술단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기획정책이사 재임 시 '더모스코피 검사'의 신의료기술 인정을 이끌었다.

■ 송승중(행정대학원 석사) 행정대학원 동창회 이사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송승중(행정대학원 석사,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이사, 전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 동문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명예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역할이 주어지며, 송승중 동문은 중앙당 차원에서 생활정책과 지역 현안을 직접 다루게 된다. 송승중 동문은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3급 부이사관을 거치는 동안 광주시청 주요 부서에서 근무한 '정통 행정가'로 평가받는다.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대변인, 세계수영대회 지원단장, 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등을 역임하며 기획·홍보·환경·교육·체육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 김상경(축산·93) 동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명



김상경(축산·93,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동문이 신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상경 원장의 임기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됐다. 김상경 동문은 1969년생으로 전남대학교 축산학과 출신이다. 1999년 기술고시 34회로 공직을 시작해 농식품부에서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방역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식품산업진흥과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직을 맡고 있었다.

**박요주 세무회계사무소**  
[2017-18년도 국제로타리3710지구 총재]

대표 박요주 (朴要柱)  
(행정대학원 6기)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40 에이엔제트(구 세중빌딩)  
Tel : 062-225-4907 Fax : 062-225-4908  
E-mail : parkoj2008@hanmail.net  
Mobile : 010-8308-3336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SBL (주)에스비엘**  
www.sblkorea.com SIGNATURE BUSINESS LEADER

최고의 품질이 곧 최고의 서비스다.

4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검증된 사업실적  
대한민국 SIGN 문화를 선도하는기업

대표 김두영  
CEO KIM DOO YOUNG

서울사무소 (02-6024)  
서울 강남구 논현로 158길 28  
먼저포스텍이스트빌딩 3층

광주사무소 (032415)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동산단 3번로 91(영우)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MINISH 오늘안치과**  
OPEN YOUR SMILE

Youn Gap Hee 대표원장 | 윤갑희 (치의학 08학)

■ 오시는 길 및 주차안내

오늘안치과 건물 1층 주차장이나 맞은편 포스코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차 시에는 데스크에 문의해주세요)

지하철 : 1호선 광천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0분  
버 스 : 윤림50, 진빌77, 태빌26, 금남26, 금남59  
송일74, 송일47, 청단20

평 일 : 9:30-18:30  
토요일 : 9:30-13:00  
야간진료는 화요일 오후 8:30 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길로 65 5층 (영주사거리)  
062-229-2875 ■ 062-229-2882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강종일(수의학·85) 동문

‘올해의 아시아태평양 임상수의사’ 선정



강종일(수의학·85. 충현동물종합병원장,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 회장)이 올해의 아시아태평양 임상수의사로 선정됐다. 한국 수의사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종일 원장은 1989년 충현동물종합병원을 개원한 이후, 36년간 임상, 연구, 교육을 통해 아시아 지역 수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또한, 제7대, 9대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2011년 WSAVA/FASAVA 콩그레스 조직위원장, 제3회 아시아태평양소동물수의사회(FASAVA)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외 소동물 임상수의사들의 교류와 협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아시아태평양소동물수의사회와 글로벌 펫푸드 브랜드 힐스가 함께 수여하는 이번 상은 아시아 지역 수의학 및 소동물임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임상수의사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 나종영(경제·73) 동문

‘송수권시문학상’ 수상



나종영(경제·73, 시인, 전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동문이 시집 ‘물염勿染의 노래’로 ‘제9회 송수권시문학상’을 수상했다.

나종영 동문은 1981년 창작과비평사 13인 신작시집 ‘우리들의 그리움’으로 등단했다. 1980년대 초 광주민중문화연구회와 도서출판 광주의 창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광주·전남작가회의, 순천작가회의의 출범을 이끌었다.

또 2005년 9월 광주·전남 지역 최초의 종합문예지 ‘문학들’을 지역 문인들과 함께 창간하는데 힘을 보탰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 기홍석(의학·82) 동문

‘명화 속 눈 이야기’ 펴내



전남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광주에서 개업의로 일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 기홍석(의학·82) 동문이 ‘명화 속 눈 이야기’(마로니에북스)를 펴냈다. 박광혁 내과 전문의와 함께 펴낸 책은 눈꺼풀, 각막, 눈물, 녹내장, 근시, 안경 등 ‘눈’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명화를 소개한다. ‘작품 속의 눈’과 ‘화가들의 눈’을 통해 색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소개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기 홍석 동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노인지도자대학에서 소설, 영화, 드라마, 그림 등에 등장하는 안과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책은 2020년 7월 2만명이 회원으로 있는 미술 관련 밴드 ‘세계 명화’에 연재한 ‘명화 속의 안과학’이 모태가 됐다.

■ 이은자(가정교육·72) 동문

‘사랑 너머 치유 장독대’ 컬러링북 출간



이은자(가정교육·72, 국문학석사, 수필가, 화가) 동문이 감성에세이 ‘사랑 너머 치유 장독대’ 컬러링북을 출간했다.

이은자 동문은 지난해부터 추억 속의 전통 K-Food를 그려왔는데, 전시 때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이 60대조차도 장독대에 대한 추억과 체험이 거의 없는 사실을 알고, 청소년들에게는 K-Food의 근간인 장독문화를, 노년층에게는 추억을 끌어낼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동안 그려왔던 장독대 작품들로 컬러링북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사랑 너머의 치유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은자 동문은 개인전 3회, 단체전 7회를 열었고 저서로는 바오로의 그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책은 밥이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다, 서울의 덩굴에서 뿌리를 보다 등이 있다.

총동창회 주요 행사 일정

- 11월 25일(화) 용연회 송년회
- 11월 28일(금) 전남대 ROTC 정기총회
- 11월 29일(토) 여수지부(화공계열) 골프대회
- 12월 01일(월) 푸른용봉회 송년회
- 12월 02일(화) 역대총창회장 오찬간담회
- 12월 03일(수) 총동창회 상임이사회 및 송년회
- 12월 08일(월) 구례지부 송년회
- 12월 23일(화) 여성용봉회 송년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주요 동정



- 10월 22일 용봉리더스포럼
- 10월 23일 해남지부 화합한마당
- 10월 25일 제45회 청경한마음축제
- 10월 28일 제97차 집행위원회
- 11월 1일 제15회 용봉인친선등산대회
- 11월 1일 용봉치인의날 기념식
- 11월 11일 인문대 2호관 준공기념식
- 11월 12일 전남대병원 후원의 밤
- 11월 17일 전남대치과병원 개원 17주년 기념식

全南大學校同窓會報



- 발행인 : 류 혜 경
- 편집인 : 김 영 필
- 발행처 :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중흥동)
- 광고문의 : 062) 528-9950
- 062) 528-9946
- 홈페이지 : <http://home.jnu.ac.kr>
- E-mail : [cnud@hanmail.net](mailto:cnud@hanmail.net)

전남대병원 교수 출신 의료진

**세계로병원**  
SEGYERO HOSPITAL

김진혁 김건우 임지현 송은규 김하성 이동현

**무릎·어깨·허리·목**

호남 유일 무릎 로봇수술기 2대 운용!  
호남 최다 척추 양방향 내시경술!

진료 내용 양방향 척추내시경 | 로봇인공관절수술  
척추 | 관절 | 뇌신경 | 복강경 | 소화기 | 건강검진

062.450.5000 광주 광산구 장신로 77 (수완지구 롯데마트 건너편)

a big wave of the law

**파라**  
법률사무소 파라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파라입니다.

변호사 곽별(법학전공 06졸)

광주광역시 동구 방실로 19 크라운빌딩 4층  
T : 062-229-3900 F : 062-229-3901 E : lawyerkb@naver.com

# 용봉인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동창회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류 혜 경 배상

### ▷ 임원회비 ◁

회 장 : 3,000만원 이상	고 문 : 3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 : 300~500만원 이상	감 사 : 200만원 이상	상 임 이 사 : 30만원 이상
이 사 장 : 1,500만원 이상	자문 위원 : 30만원 이상	부 이사장 : 200만원 이상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이 사 : 2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3-127-004515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 일반회원회비 ◁

일반회비 : 3만원 이상	평생회비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08738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	---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명단이 누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 E-mail : cnud@hanmail.net

## 동창회비 납입 동문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2025년 1~9월 분

#### 임원회비 (1월 1일~9월 30일)

##### 회 장

▲류혜경(의학·76) 3,000만원

##### 이사장

▲오형석(불어불문·83) 1,500만원

##### 상임고문

▲이기홍(법학·53) 30만원

▲조국현(의학·61) 100만원

▲최상준(건축공학석사·58) 30만원

▲허 정(의학·70) 50만원

▲정인채(토목공학·65) 30만원

▲박승현(건축공학·70) 30만원

##### 고문

▲구승룡(의학·72) 100만원

▲김세자(간호·71) 30만원

▲라석찬(의학·57) 50만원

▲배지수(요업공학·68) 5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이연익(수의·63) 30만원

▲이정재(경최·25기) 10만원

▲임년식(토목공학·58) 30만원

▲임청택(경영·61) 30만원

▲주경석(법학·58) 30만원

▲김안자(간호·62졸) 50만원

▲이정재(경최·25기) 20만원

##### 자문위원

▲강신영(화학공학·71) 30만원

▲공병철(정관·26기) 10만원

▲공후식(경영석사·96) 30만원

▲김경호(경영·86) 30만원

▲김대중(철학·79) 30만원

▲김만웅(최고경영자·5기) 30만원

▲김성대(원예·73) 30만원

▲김 영(화학공학·72) 30만원

▲김영진(의학·73) 30만원

▲김재화(경관·98) 3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30만원

▲김종령(정치외교·74) 30만원

▲김주현(경제·75) 30만원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문영수(경관·37기) 30만원

▲민형배(사회·79) 30만원

▲박동만(교육대학원·96) 30만원

▲신윤숙(가정교육·72) 30만원

▲신종봉(수의·71) 30만원

▲오광인(입학·65) 30만원

▲오재규(화학공학·72) 50만원

▲윤현두(자원공학·70) 30만원

▲이선규(행정대학원·6) 30만원

▲임우진(법학·73) 30만원

▲정기명(법학·81) 30만원

▲정찬구(경최·95) 30만원

▲최정원(농업경제·70) 30만원

▲최철수(전기·68) 20만원

▲최희갑(명예회원)

##### 수석상임부회장

▲최화동(원예·74) 200만원

##### 상임부회장

▲고병운(건축공학석사·17) 300만원

▲김성민(무역·87) 300만원

▲김종선(의학·92) 300만원

▲홍은화(독어교육·83) 300만원

▲서영숙(가정관리·85) 300만원

▲양부남(법학·80) 50만원

▲오경미(상업교육·82) 300만원

▲윤영주(회계·85) 300만원

▲이지현(경제·08) 300만원

▲임미선(국사교육·89) 300만원

▲정민호(경제·85) 300만원

▲정혁준(행정·93) 300만원

##### 부이사장

▲박인철(행정·90) 100만원

▲강승희(농학·97) 200만원

##### 장학재단 감사

▲이성길(법학·78) 100만원

▲김정민(회계·90) 50만원

##### 부회장(집행위원)

▲민정준(의학·85) 50만원

▲황윤찬(치의학·92) 50만원

##### 단과대회장

▲박숙령(간호·74) 50만원

▲손희하(국어국문·75) 50만원

▲윤진학(미술·86) 50만원

▲오기석(수의·77) 50만원

▲서해현(의학·75) 50만원

▲이만선(경관·25기) 50만원

▲류상욱(해양·82) 50만원

##### 부회장

▲강상규(행정석사·95) 50만원

▲강대광(농업경제·82) 50만원

▲강형선(기계공학·2) 50만원

▲강훈열(사법·86) 50만원

▲고병일(경제·84) 50만원

▲고영철(신소재공학·99) 50만원

▲김건안(사회목화복지·19) 50만원

▲김남근(원예·82) 50만원

▲김명균(사학·85) 50만원

▲김명호(의학·79) 50만원

▲김보영(정치석사·25) 50만원

▲김성원(경영·80) 50만원

▲김성희(사법·91) 50만원

▲김옥열(신문방송·85) 30만원

▲김용권(디아스포라협동박사·94) 50만원

▲김용집(행정대학원·82) 50만원

▲김용환(수의·85) 50만원

▲김윤세(경최·10기) 50만원

▲김재용(경영·88) 50만원

▲김재찬(행정석사·12) 50만원

▲김재필(축산·82) 50만원

▲김정후(영어영문·80) 50만원

▲김정희(정청·86) 50만원

▲김제승(자원공학·72) 50만원

▲김중춘(무역·78) 50만원

▲김준안(정치외교·95) 50만원

▲김진혁(공학박사·교직원) 50만원

▲김평호(사법·89) 50만원

▲김현중(정치외교·90) 50만원

▲김현진(미술·90) 30만원

▲나수진(농생물·88) 50만원

▲노복균(의학·91) 50만원

▲노상익(행관·88) 50만원

▲노재형(미생물·92) 20만원

▲노진영(산업공학석사·93) 30만원

▲노형석(수학·88) 50만원

▲류현호(의학·89) 50만원

▲맹종호(입학·84) 50만원

▲문기식(행정·79) 30만원

▲문병우(지역개발·86) 30만원

▲문 인(토목석사·96) 50만원

▲문재용(기계공학·85) 50만원

▲박경우(신문방송·86) 50만원

▲박대호(농학·87) 50만원

▲박명숙(국어국문·98) 50만원

▲박서연(화학공학·88) 50만원

▲박영용(행정석사·13) 50만원

▲박용수(과학교육·75) 30만원

▲박 원(행정·85) 20만원

▲박준수(경제·83) 20만원

▲박현철(치의학박사·17) 50만원

▲백지훈(신문방송·90) 50만원

▲범희승(의학·76) 50만원

▲서애련(사법·92) 50만원

▲서용규(중어중문·84) 20만원

▲선종아(낙농·86) 50만원

▲손창현(회계·77) 50만원

▲손해수(수의·85) 30만원

▲송종욱(정치외교·81) 50만원

▲심재연(간호·76) 50만원

▲양주열(행정·82) 50만원

▲양혜령(치의학·81) 20만원

▲오병석(의학·91) 50만원

▲오수진(법학·1) 50만원

▲오유나(영어교육·92) 50만원

▲우남일(수의·88) 50만원

▲윤 익(미술·84) 50만원

▲이병준(법학·76) 50만원

▲이병철(정치외교·87) 30만원

▲이상소(행정석사·8) 50만원

▲이상식(회계·81) 50만원

▲이승룡(건축·78) 50만원

▲이승택(의학·82) 50만원

▲이연풍(경관·14기) 50만원

▲이재연(물리화학·96) 50만원

▲임성복(사법·82) 50만원

▲임종대(금속공학·84) 50만원

▲임지락(원예·83) 50만원

▲임현정(컴퓨터정보·94) 50만원

▲장상문(농공학·81) 30만원

▲정권희(화학공학·81) 50만원

▲정 남(미술·90) 10만원

▲정덕근(일반행정·3) 20만원

▲정순근(행관·23기) 20만원

▲정진욱(도시 및 지역개발정책·15) 50만원

▲정해정(낙농·85) 50만원

▲조봉근(정책·92) 50만원

▲조상현(농업경제·82) 50만원

▲조진형(치의학·91) 50만원

▲주중섭(철학·88) 50만원

▲차정은(행최·6기) 30만원

▲최정희(사법·92) 50만원

▲최춘태(농학·81) 15만원

▲최현진(무역·89) 50만원

▲한태호(원예·88) 10만원

▲홍종희(기계공학·70) 50만원

▲황선욱(의학·66) 50만원

##### 상임이사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서상우(정치외교·80) 20만원

▲신종혁(산림자원·99) 30만원

▲이영주(약학·94) 30만원

▲이준근(경관·34기) 30만원

▲최고산(21세기 최고지도자·30기) 30만원

▲최충명(정치외교·98) 30만원

##### 이 사

▲임동국(약학·3) 20만원

▲정경훈(약학·11) 20만원

▲전미희(식물생명공학·9) 20만원

평생회비 (1월 1일~9월 30일)

- ▲박은영(사회복지협동·11) 50만원
- ▲하주아(생활환경복지·13) 50만원
- ▲마영완(화학·83졸) 50만원
- ▲김 완(의학·76) 50만원

연회비 (1월 1일~9월 30일)

- 간호대학**
- ▲김혜영(간호·91)
- ▲최선례(간호·60졸)
- ▲남상욱(간호·68)
- ▲문정선(간호·74)
- ▲서향자(간호·67졸)
- ▲안정옥(간호·77)
- ▲이종임(간호·82)
- ▲최영자(간호·73졸)

- 경영대학**
- ▲강대성(무역·76)
- ▲강부암(회계·90)
- ▲김선윤(경영·83)
- ▲김영근(경영·87)
- ▲김영철(경영·75)
- ▲김원호(경제·65)
- ▲김윤근(회계·82)
- ▲김재인(경영·83)
- ▲김태수(경영·80)
- ▲민화식(경제·58)
- ▲박병춘(경영·80)
- ▲봉필삼(회계·83)
- ▲소홍석(무역·74)
- ▲송천식(무역·58)
- ▲윤명호(무역·67)
- ▲이문규(무역·87)
- ▲이승국(행정·90)
- ▲이주환(지역개발·86)
- ▲정선호(무역·77)
- ▲최성주(경제·80)
- ▲한동철(무역·75)
- ▲한성수(회계·82)
- ▲김남규(회계·84)
- ▲김정호(무역·79)
- ▲임문규(경영·73)
- ▲홍장표(경제·55)

- 공과대학**
- ▲강대욱(토목공학·58)
- ▲강진하(금속공학·72)
- ▲고형석(건축공학·61)
- ▲김관현(토목공학·61)
- ▲김부용(화학공학·71)
- ▲김상태(기계공학·75)

- ▲김선식(화학공학·69)
- ▲김성귀(토목공학·79)
- ▲김영남(전기공학·70)
- ▲김영무(전기공학·61)
- ▲김용백(건축공학·68)
- ▲김용재(금속공학·70)
- ▲김인구(토목공학·80)
- ▲김종근(건축공학·72)
- ▲김진하(화학공학·69)
- ▲김현호(금속공학·68)
- ▲김형주(화학공학·80)
- ▲류정균(화학공학·84)
- ▲박동주(전기공학·61)
- ▲박순식(토목공학·83)
- ▲박종호(토목공학·77)
- ▲백부선(화학공학·55)
- ▲변영재(요업공학·68)
- ▲서금렬(공업화학·85)
- ▲서정철(전기공학·68)
- ▲손동일(건축공학·83)
- ▲염종환(기계공학·78)
- ▲오병수(기계공학·72)
- ▲오상용(화학공학·69)
- ▲오일환(전기공학·76)
- ▲윤대좌(전기공학·72)
- ▲윤재화(토목공학·58)
- ▲이병길(화학공학·58)
- ▲이은수(기계공학·81)
- ▲이재동(토목공학·71)
- ▲이한목(토목공학·58)
- ▲이한민(토목공학·87)
- ▲이현균(기계공학·79)
- ▲이현성(토목공학·73)
- ▲이형섭(금속공학·76)
- ▲장 희(화학공학·77)
- ▲장상욱(전기공학·72)
- ▲정달성(전기공학·72)
- ▲정우섭(화학공학·70)
- ▲정유홍(기계공학·74)
- ▲정한수(건축공학·70)
- ▲정호재(기계공학·79)
- ▲조대우(요업공학·69)
- ▲지영섭(금속공학·64)
- ▲차승건(토목공학·72)
- ▲천양기(건축공학·70)
- ▲최문길(전기공학·70)
- ▲최양석(화학공학·89)
- ▲최연수(금속공학·81)

- 농업생명과학대학**
- ▲가갑서(농업경제·68)
- ▲김규상(임학·62)
- ▲김성근(임학·62)
- ▲김을수(임학·79)

- ▲김재익(농화학·68)
- ▲박금중(농학·73)
- ▲박인진(농학·66)
- ▲박상준(조경·83)
- ▲변연학(임학·67)
- ▲서영권(농학·69)
- ▲신동길(농업경제·86)
- ▲심재윤(농학·71)
- ▲이덕범(임학·77)
- ▲이영승(농화학·83)
- ▲이정욱(임학·69)
- ▲임행진(임학·52)
- ▲임행진(임학·52)
- ▲임형기(농업경제·67)
- ▲정구선(임학·58)
- ▲조홍근(농학·69)
- ▲최근영(국제·07)
- ▲최안성(축산·82)
- ▲최안성(축산·82)
- ▲최안성(축산·82)
- ▲한태호(원예·88)

- 법과대학**
- ▲강한주(공법·86)
- ▲강현섭(법학·72)
- ▲강훈열(사법·86)
- ▲김길원(법학·65)
- ▲김병하(법학·77)
- ▲김성훈(사법·91)
- ▲김철영(법학·57)
- ▲나현숙(공법·87)
- ▲문동길(행정·78)
- ▲박광호(행정·92)
- ▲박병철(법학·75)
- ▲배상호(법학·67)
- ▲유영성(법학·79)
- ▲윤서강(사법·86)
- ▲이두백(법학·69)
- ▲이승국(행정·90)
- ▲임성환(법학·74)
- ▲임정택(법학·63)
- ▲최준동(행정·71)
- ▲최태화(법학·58)
- ▲황의봉(법학·58)

- 사범대학**
- ▲김중해(지리교육·81)
- ▲박경자(지리교육·79)
- ▲박종근(불어교육·78)
- ▲윤준서(생물교육·84)
- ▲이승오(국어교육·81)
- ▲장길수(생물교육·82)
- ▲정경모(영어교육·87)

- 사회과학대학**
- ▲김석병(사회·78)

- ▲김양순(심리·87)
- ▲김형국(정치외교·72)
- ▲박하일(정치외교·54)
- ▲선국규(사회·79)
- ▲송재기(정치외교·72)
- ▲이남기(정치외교·84)
- ▲이은석(문헌정보·84)
- ▲한성수(정치외교·72)

생활과학대학

- ▲박미림(의류·80)

수의과대학

- ▲고진구(수의학·73)
- ▲고태오(수의학·80)
- ▲문무광(수의학·61)
- ▲문병현(수의학·73)
- ▲백병선(수의학·72)
- ▲성광일(수의학·53)
- ▲안익순(수의학·69)
- ▲유동현(수의학·56)

약학대학

- ▲김영란(약학·86)

의과대학

- ▲김종성(의학·77)
- ▲민혜란(의학·78)
- ▲박찬연(의학·85)
- ▲박형보(의학·55)
- ▲손석준(의학·76)
- ▲안영안(의학·75)
- ▲안현영(의학·76)
- ▲윤영의(의학·61)
- ▲이기운(의학·79)
- ▲이유근(의학·61)
- ▲최정섭(의학·79)
- ▲허인무(의학·53)

인문대학

- ▲강상욱(사학·88)
- ▲강성률(철학·79)
- ▲고지문(영어영문·59)
- ▲김양현(철학·80)
- ▲김재봉(국어국문·70)
- ▲김종옥(철학·72)
- ▲류순범(영어영문·76)
- ▲문홍기(국어국문·60)
- ▲박창준(중어중문·84)
- ▲성낙준(사학·72)
- ▲신남영(국어국문·81)
- ▲엄철주(영어영문·79)
- ▲이성규(영어영문·81)
- ▲지경래(국어국문·58)
- ▲최지희(철학·97)
- ▲한영호(철학·61)
- ▲황순영(영어영문·76)

자연과학대학

- ▲김애리(계산통계·82)
- ▲문정호(생물·73)

치과대학

- ▲최준규(치의학·87)
- ▲전상민(치의학·00)

교육대학원

- ▲윤희숙(교육석사·04)
- ▲조명옥(여성지도자과정·1기)

경영전문대학원

- ▲강대일(경관·27기)
- ▲고병선(경관·29기)
- ▲김석기(경관·38기)
- ▲백영팔(경관·38기)
- ▲유병진(경영석사·90)
- ▲이유섭(경관·22기)
- ▲이학재(경최·21기)
- ▲임종학(경영석사·34기)
- ▲정광영(경관·27기)
- ▲허상배(경관·36기)
- ▲황경태(경영석사·94)

법학전문대학원

- ▲차기현(법학석사·10)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이일순(체육·16)
- ▲채복경(간호·05)
- ▲임근천(체육·18)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류인섭(원예·95)
- ▲유영선(기계공학·1)

산업대학원

- ▲권오진(토목공학·12)
- ▲김진선(산관·10기)
- ▲민창식(산업공학·15)
- ▲안경섭(식품의식·18)

정책대학원

- ▲김흥태(행정·5)
- ▲신승수(행정·2)
- ▲심재록(최고정책·14기)
- ▲박성호(행정·0)
- ▲오승준(행정·91)
- ▲윤인후(행정·92)
- ▲이길선(행관·25기)
- ▲전주언(행정·92)
- ▲정현철(행정·85)
- ▲최원섭(행정·4)
- ▲한동석(행정·99)
- ▲홍춘일(행관·30기)

치의학전문대학원

- ▲김예슬(치의학·15)

교직원

- ▲유희석(교직원)

- 단과대학불분명**
- ▲김종민
- ▲무기명(00·00)

2025년 10월 분

임원회비 (10월 1일~10월 31일)

<b>수석상임부회장</b>	
최희동(원예·74)	100만원
<b>상임부회장</b>	
박명숙(수학·87)	300만원
<b>자문위원</b>	
구연수(행관·29기)	20만원
장문자(여성지도자과정·4기)	30만원

부회장

고병욱(철학·98)	30만원
고창욱(최고경영자과정·)	10만원
김동찬(경최·26기)	50만원
민기홍(행정석사·9)	50만원
민상준(경영석사·11)	50만원
안영근(의학·83)	50만원
전창주(제약·82)	30만원

연회비 (10월 1일~10월 31일)

<b>간호대학</b>	
김혜영(간호·91)	
<b>경영대학</b>	
김재명(경영·87)	
<b>공과대학</b>	
노한주(건축공학·70)	
<b>농업생명과학대학</b>	

박준기(농업경제·86)	
유종석(임학·78)	
최안성(축산·82)	
<b>법과대학</b>	
김귀중(행정·72)	
<b>의과대학</b>	
김용덕(의학·75)	
<b>일반대학원 박사과정</b>	
임일빈(농학·89)	

**<대학원 약칭 범례>**

- 경관 :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 경최 :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정관 : 정책대학원
- 정석 :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 정최 : 정책대학원 최고정책과정
- 산관 : 산업대학원
- ※ '행정대학원'이 '정책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경영대학원'이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주식 투자의 길잡이  
AI가 답하다

# 신한투자증권 AI PB

'고객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신한 새로고침



AI PB  
바로가기



## 신한 새로고침 프로젝트

고객의 말씀에 귀 기울여 크고 작은 불편을 개선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신한금융그룹의 고객편의성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82276%~0.1891639% (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2057호(2025-09-30 ~ 2026-09-25)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4325호(2025-10-01 ~ 2026-09-30)